

2010년 피택자 교육의 시작



2010년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피택된 44명의 피택자 교육이 지난 11월 14일에 첫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날 3층 초등부실에서 시작된 피택자 교육은 정요섭 목사님의 인도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시종일관 화기에 애하게 진행되었다.

교육이 시작된 처음엔 긴장한 탓인지 모두가 엄숙한 분위기였으나 점차 찬양과 목사님이 제시한 진진가(진짜 진짜 가짜)와 참 아름다운 하사(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조별로 발표하게 하면서 긴장감은 봄눈 녹듯이 사라졌다.

이번 교육은 1차 2차로 나누어 본교회 목사님들과 외부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며 실습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할 계획이라 한다.

피택자에 대한 교육이 앞으로 본교회를 이끌어 나갈 일꾼들을 양성하는 계기가 되고, 본교회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립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정요섭 목사님은 이번 피택자교육에서 “3D 분야에 해당하는 주방, 주차, 교육 분야에서 택일하여 6개월 봉사해야하며, 피택자들은 훈련기간 상례위원으로 의무적으로 봉사해야하며, 특별새벽기도회(대림절, 고난절) 동안 주차봉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교회의 방침을 전하기도 했다. 이어 첫 교육이 끝난 후 김성구 장로 피택자는 “본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그림자처럼 교회를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하태원 기자>

사랑의 연탄배달 2탄

올해도 나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삶을 실현하기 위해 일삼회 식구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마천동 독거노인과 어려움에 지쳐계신 분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모였습니다. 비록 작고 미약한 우리들의 사랑이지만 이 작은 사랑이 그 분들의 희망이 되고 삶에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작년 11월은 날씨가 매서워 손과 발이 시려왔는데 올해는 일삼회의 따뜻한 사랑이 추위도 녹인 듯 햇살이 따사롭고 바람도 없는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돈이 있어서 시간이 남아서 하는 일은 아닌듯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나누고 베풀면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400장의 연탄을 나르는 일삼회 식구들은 피곤함보다 즐겁고 뿌듯한 정말 신나는 놀이를 만난 어린이처럼



기쁨이 넘쳤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행복한 일 인듯합니다.

울긋불긋 오색 빛깔로 치장한 단풍잎이 눈부신 늦가을 아니 초겨울에 어렵게 사시는 독거노인과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이 단풍잎처럼 노년을 아름답게 수놓길 바라며, 또한 이웃들의 사랑을 통해 늘 마음의 풍요로움과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말며 하루하루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작은 불씨가 더 큰 사랑의 불씨가 되리라 믿으며!!

2회째 사랑의 연탄 배달을 하기까지 늘 앞서서 몸소 일하시는 이 형구집사님 고맙습니다. <서정하 기자>

사랑나무 아이들과 예쁜 사랑의 쿠키



아름다운 색으로 곱게 물들인 자연을 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사랑으로 넘친 사랑나무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 또한 사랑의 마음이 넘침을 느낍니다. 마음이 은은한 음악이 마음을 고요하게 가다듬게 합니다. 사랑나무 아이들과 함께한 그 시간 시간이 사랑임을 느낍니다.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사랑나무 아이들과 맛있는 쿠키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아이들은 밀가루 반죽만 가지고 노는 시간도 즐거워 보입니다.

쿠키를 만드는 모양이 별인지 나뭇잎인지 하트 모양

의 사랑의 표시인지 아이들은 모르지만 그래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힘을 주며 만들어 보며 만들어진 쿠키를 먹으며 즐거움에 빠져 봅니다. 통통한 볼에 꼬맹이들, 아름다운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정말 보기 좋습니다. 교사들 모두 아이들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예쁘게 만든 쿠키보다 더 예쁜 꿈이 있는 아이로 커주길 바라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신 ……그 짐 나누며 살길 바라며……예쁘게 자라서 너의 예쁜 눈으로 이 세상 모든 것 보면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활짝 웃으면서 나오려무나. “라고

아이들과 교사들이 쿠키를 만들며 즐거워하는 그 시간 아이들의 부모들 그 시간은 그들만의 시간을 가져 봅니다. 1년 12달 그들과 항상 함께해야 할 부모들 오늘은 그들만의 편안한 시간을 가지게 하여봅니다.

누군가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 짐을 맡을 만하니 하나님의 그들에게 그 짐을 주셨다고.”

부모님들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사랑나무 아이들에게 항상 사랑의 꽃이 피게 해달라고요, 사랑이 예쁘게 꽃 피우듯 곱게 물들어 가는 사랑 11월의 그 예쁜 사랑 가을 사랑 못지않게 예쁘게 물들라고요, “ 사랑나무는 주님의교회 발달장애아들과 자폐아동을 위한 예배 공동체이며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지하 사랑나무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나무 부장 신형섭 안수집사>

앵글공연 _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주일 (11.28) 오후 3시 / 대예배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나 자신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본문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닉 부이치치의 허그 Hug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극심한

장애를 안고 있지만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려 힘쓰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서핑을 즐기고, 드럼을 연주하고, 골프공을 치는 등 자신의 신체가 갖는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멋진 인생을 살고 있으며 또한 강연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세워주고 있는 오늘날의 ‘그’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 다. 이 책을 통해 들려주는 그의 삶의 좌절과 극복의 과정들은 결코 그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전해주는 메시지들을 통해 제 삶의 상처들이 회복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얻게 되었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책 중 제게 가장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은 미국의 어느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간 닉이 자신과 똑같은 신체를 가진 아이 대니얼을 만난 대목입니다. 기적을 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는 대신 닉 그 자신이 아이의 기적이 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닉은 대니얼의 모델이자 그 부모의 기도의 응답이 되었고 닉 역시 대니얼을 통해 자신의 삶을 타인과 나누는 기쁨을 경험하며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고 웃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시선이 닉 부이치치에 머물게 하지 않고 그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박윤정 기자>

함글함울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문의: 하태원 편집장 T.019.313.3073

전화신앙 상담 ☎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오늘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
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 _ 잠언 8 : 17

동 권 _ 제 275호
발행인 _ 담임목사 박원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0년 11월 28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_ 롬 12:5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마라나다!” -대림절 (성육신/ 재림) 과 주님의 뜻-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대림절은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되는 절기이다. 세속
력은 양력으로 1월 1일 혹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 시작되
지만, 교회력은 바로 대림절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대림절은
성 안드레 기념일(St. Andrew's Day)인 11월 30일 혹은 이
날에 가장 가까운 주일에서 시작하여 크리스마스 이브까
지 4주간의 절기이다. 그러므로 이 절기는 성탄절 4주전부
터 시작되며,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찾아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성도들의 자신들의
신앙을 준비하고 점검하는 절기이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대림절은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중
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로는 여겨지지 않았다. 다만 성탄절
을 준비하는 절기 정도로만 알아 왔다. 그러나 대림절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즐거운 성탄절을 기다리고 아기 예수
의 오심을 기리는 감상적인 절기만이 아니다. 물론 대림절
은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이다. 그러나 여기에
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대림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애타게 부르짖고 찾는 인간을 향해 다가오
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이
다. 고통과 문제로 점철되어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심지어
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을 고대
하고 있다(롬 8:18).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썩
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롬 8:21). 대림
절은 우리들로 하여금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웠던 예수
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과 구원이 필요한 모든 피조물들에
게 참 소망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
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

1세기 이래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러 모일
때마다 “마라나다”(Maranatha)를 고백했다. 이는 “주 예
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라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이었다. 그런데 이 말은 두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는 “Our Lord has come” (maranatha / 우
리 주님께서 오셨다 /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을 표현
하는 완료형)이고, 또 하나는 “Come, our Lord!” (marana
tha / 주여 오시옵소서! /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명령
형)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은 초대교인들의 신앙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즉 초대교인들은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는 믿음(완료형)과, 이제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참 소망(명령형)을 가지고 살았
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성탄절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성탄절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주님(성육신)을 기쁘게 맞이하고 감사한다. 그
러나 주님은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심판 주로 오실 것이
다(재림). 그러므로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다시 오실 주
님을 기다린다. 따라서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성
육신 : Already)을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재림 : Not Yet)을 맞이할 영적인 준비를
하는 계절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새로운 교회력
이 시작되는 대림절 첫 주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소
서”라는 주제로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는 것은 매우 의
미있는 일이다. 우리는 점점 더 상업화되고 세속화되는
물결 속에서 대림절 기간동안 초대 교회 성도들이 “마라
나타”(Already and Not Yet)를 외치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
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한다. 우리 주님
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오신다면 그 얼마나 복된 순간일
까?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주승중 (장로회신학대학교 예배설교학 교수) >

하나님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



1. 체계적인 말씀사역
2. 선교 공동체로서의 소그룹활성화
3. 훈련을 통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4. 교회 지원과 개척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
5. 목적에 따른 다양한 예배
6.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 교육과 청소년 집중 사역
7. 통합적 환경 복지 사역

주간 목회력

11.29 ~ 12.4 대림절특별새벽기도회

11.28 (주일) 성극앵콜 공연

12.1(수) 대림절 찬양의 밤

<유아세례식 신청>

교육 : 12/ 12, 19 오후 1:30 ~ 3:00 / 초등부실

<VIP 겨자씨 초청>

12월 첫주 겨자씨모임

북한선교바자회 후기

2면

성극(하늘 가는 밝은 길이) / 군부대 사역

3면

피택자 교육 / 사랑의 연탄 / 사랑나무 쿠키

4면

* 우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북한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성황리에 마친다”

바자회를 통해 이웃과 나누고 만나며 북한선교를 위해 마음을 열고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나눔과 만남이라는 주제로 준비된 북한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11월13일 대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바자회가 시작되기 전 모든 준비를 마친 봉사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바자회를 통해 이웃과 나누고 만나며 북한선교를 위해 마음을 열고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드렸다.

오전 10시로 예정된 바자회가 시작되기 일찍 전부터 100여 미터 이상 겹겹이 줄을 서고 기다리던 이웃주민들과 성도들의 맨 앞에서 박원호 담임목사가 바자회장소인 정신여중고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국내선교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준비된 북한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드디어 막을 올렸다.

체육관 안은 순식간에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찼고 물품을 고르며 흥정하느라 시끌벅적한 하나의 거대한 장터가 개설되었다. 물건을 사러 온 분들은 체육관 안에 가득 정리되어 전시된 물품의 종류와 품질, 그리고 그 양에 압도되었고, 또한 그 착한 가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전시된 물품에는 성도들이 쓰던 물품을 기증한 것들과 아끼며 사용하지 않은 물품들, 그리고 점포에서 팔던 신상품을 다량 기증하여 좋은 물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보통의 바자회와는 달리 업체들을 초청하지 않고 가증된 가라지 물품과 직접 준비한 물품을 파는 바자회로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모였다.

바자회는 또한 성도들이 기증한 가라지 물품 수천 점 외에 실무준비팀에서 마련한 한우, 계란, 오미자 등 농수산물과 권사회에서 담근 김치와 기증된 된장과 고추장 등 식품이 있었고, 장애인교우와 겨자씨에서 정성스레 만든 향비누 등도 눈에 띄었다. 또한 9개 농어촌교회와 도시개척교회에서 준비한 농수산물, 노숙자와 장애인사역을 하는 3개의 단체와 교회 등에서 양말, 옷, 엿 등을 판매하였다. 성도들이 기증한 물품 중 최수중 하회라 부부와 동료연예인들이 기증한 물품은 “최수중/하회라의 착한 가게”라는 이름으로 전시되었고 수십 여점의 물품들이 순식간에 매진되었다.

체육관 밖에서는 여전도회에서 준비한 국밥, 파전, 닭강

정, 소고기 덮밥, 케익 등 맛있는 음식이 열거에 판매되고 있었고 봉사부에서 준비한 커피와 한 커피회사에서 무료로 원두커피와 토스트를 제공하여 참석한 이웃과 성도들을 즐겁게 이용할 수 있었다. 마침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방문객들이 따사한 햇살아래 즐겁게 담소하면서 식사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고 준비하는 봉사자들을 기쁘게 하였다.

나눔과 만남이라는 주제로 준비된 바자회는 준비과정에서부터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여 북한선교를 위해 마음을 열고 하나 된 마음으로 준비한 행사였다. 값진 물품들을 아낌없이 기증하였고, 바쁜 와중에서도 가라지 물품을 접수하고 정리하고, 먹거리를 준비하고, 오미자와 김치를 담그고 하는 일들을 마치 자신의 일인양, 아니 더 열심히 정성스레 준비하는 손길들을 보고 하나님나라 위해 헌신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웃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였고 전도대상자인 VIP들을 초



청하였고 또 정신학원에선 처음으로 체육관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 아니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와 교사 가족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등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바자회 당일 인근의 식당까지 한산할 정도로 이웃주민이 많이 참여하였음을 감안하면 바자회의 규모와 참여 열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주민들의 바자회참여로 경영하는 음식점에 손님이 없었다는 한 음식점주인의 말이 감동적이다. ‘좋은 일을 교회가 하는데 조금 불편한 것은 당연히 참을 수 있다. 나도 바자회에서 좋은 물건을 싸게 사왔다’ 이런 모습이 북한선교를 위해 마음을 열면서 나눔과 만남이라는 주제대로 바자회가 진행된 모습이 아닐까 한다.

바자회 준비과정은 좋은 물품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성도들과 이웃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명제와, 북한선교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격을 올리자는 의견이 충돌하는 거룩한 다툼의 현장이기도 했다. 하지만 마음에 꼭 드는 물품을 손에 들고 기뻐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자기도 좋은 물건을 사고 싶는데 봉사자이기에 사지 못하고 지켜만 보던 봉사자들에게도 뿌듯한 자부심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총 1억 2천 여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하루 만의 매출액으로는, 남은 물품을 처분하기 위해 다음날로 연장되기는 했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성도들



의 기증물품의 판매수익 13,970,000, 한우, 오미자, 계란 등이 판매수익 8,437,000, 권사회의 김치판매 수익 4,400,000과 기증식품류 판매로 2,480,000 그리고 먹거리 수익 1,428,000 등, 총 30,715,000의 수입을 올려, 경비를 공제한 23,450,000의 순수익을 올렸으며, 교회의 지원 예산을 포함하여 28,953,000을 하나원을 수료하는 탈북자와, 중국 내 탈북 고아들을 돌보는 기관인 "손과마음재단(SLI)의 지원과 우리 교회 협력선교사가 주도하는 북한주민을 위한 내북보내기(예초 의도하던 떡국보내기가 마감되어 내북보내기로 변경) 및 정신여중고 체육활동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북한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마치면서 전교회적으로 참여하신 성도들, 특히 아끼던 물품을 기증해 주신 분들과, 물품을 사 주신 성도들과 이웃주민들, 남은 물품을 기꺼이 처리해 주신 여러 성도들, 물품을 정리하고 판매하고, 오미자와 김치를 담그고 하면서 몸살이 날 정도로 헌신적으로 참여하신 권사회와 여전도회, 국내선교소위원회의 실무준비팀과 각 팀, 그리고 힘든 일을 도맡아 처리해 준 교회 직원들, 차량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긴 수많은 손길들, 체육관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가정통신문까지 보내면서 협조해 주신 정신여중, 여고 교장선생님 이하 전교직원, 그리고 불편을 감수한 정신여중고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소통과 하나 됨이란 이런 모습일 것이다.

준비과정에 봉사자나 기증자,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한 점 또한 있었을 것이다. 이런 규모의 행사를 처음 준비하다 보니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있었고 부족한 점도 많았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던 점에 대하여 장애인 교우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북한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준비한 국내선교소위원회와 전 봉사자들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과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으로 그리고 이 바자회를 은혜가운데 마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 드린다.

<박중순 장로>

바자회 결산내역표

수익	지출
기증물품의판매수익	경비
₩ 13,970,000	₩ 7,265,000
한우오미자계란판매수익	순수익
₩ 8,437,000	₩ 23,450,000
권사회김치판매 수익	
₩ 4,400,000	
기증식품류 판매수익	
₩ 2,480,000	
먹거리 판매수익	
₩ 1,428,000	
총 ₩ 30,715,000	총 ₩ 30,715,000

연출가의 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



성극팀에서는 이번 12단계 종강기념 공연으로 고심 끝에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인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헌정하기로 결정했다.

각박하고 자기 자신만을 아는 이 시대에 희생과 헌신의 순교자의 삶을 그리고 싶었다. 본격적으로 대본을 구하고, 배우를 캐스팅하는데 한달이 소요됐다.

팀장인 박인호 안수집사님과 함께 연기팀과 스텝팀으로 역할을 나누어 연습에 들어갔다. 기존 연기자들은 단역이나 스텝으로 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주역으로 삼았다. 연기는 물론 발음, 억양에 어려움이 많았다. 음악이 전공인 나는 배우만 해보았지, 연기지도와 동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함으로 신영숙권사님께 부탁하고, 기획은 장수호 집사님께, 무대장치는 함혜련 집사님, 의상은 방혜준 권사님, 음악효과는 박인석 안수집사님, 조명은 김인성집사님, 분장 박운행집사님, 총무는 김경숙 집사님이 맡아 모두 한마음으로 작품을 조금씩 만들어 나아갔다. 경비를 절약하려고 남대문시장에 싼옷을 구하러 가는 의상팀, 무대배경으로 쓸 벚단을 얻어오며 톱질하며 애쓰는 무대소품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었다. 주인공 손양원 목사에는 최우철 집사님이 사모에는 박미향 집사님이 캐스팅 되었다. 그리고 청년부의 재선, 동인, 선희, 친구역의 이민규, 정태희, 이임화, 김승원은 반짝이는 연기력으로 힘을 실어주었고, 신인배우들의 연기도 일취월장이었다. 나레이션을 성우 손정아 집사님이 맡아주셔서 기뻐고, 공연시간을 50분 안으로 맞추려고 대본을 수정했다. 그리고 한달간 성극팀전원이 릴레이기도에 들어갔다. 모두 은혜가 충만했다. 헌데, 공연 전날 리허설엔 무대이동등 진행이 맞질않아 속이 탔다. 잠이 오지않아 기도하며 자다깨다 했다. 드디어 본공연!! 성공적이었다. 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감동의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앵콜공연을 주일오후 3시에 다시 하게 되니 가슴이 벅찼다. 타고회분이나 믿지 않은 분이 초대되어 관람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성극팀 모두와 도와주신 손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손경숙 집사〉



군부대 진중세례를 결산하며

아침부터 희뿌연 안개가 시야를 흐리게 하더니 어느 사이에 해가 떠오르고 날씨도 화창하여 길을 달려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 오늘의 행사가 은혜로울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다.

겨울로 들어서는 문턱 11월 20일(토)에 군선교팀은 강원도 양구에 있는 백두산 부대(21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신병 242명에게 세례를 드리고 왔다. 이번 방문은 금년도 진중세례지원행사의 마지막으로 몇 달 전부터 권사회에서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년부에게도 ‘청년이 군복 입으면 군인이요, 군인이 군복무를 마치고 군복을 벗으면 다시 청년임’을 내세워 동참할 것을 요청한 결과 33명이나 대거 출동하는 매머드지원팀이 되어 버렸다.

예전에는 군선교팀만 열명 내외의 인원으로 갈 때는 조출하고 간단하였는데 갑자기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참여하니 차량지원, 식사, 행사분담, 예산 등 협조하고 준비해야 할 사안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세례행사를 지원한답시고 오히려 부대에 민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으나 부대에서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지원팀도 열과 성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청년부는 미리 도착하여 장비를 셋팅하고 찬양을 준비하느라 별도의 대형버스로 아침 일찍 출발하였고 나머지 팀은 두 대의 봉고차에 나누어 타고 9시 반에 출발하였다. 양구까지는 지금도 두시간 반이나 걸리는 상당히 먼 거리이다. 예전에는 국도로 춘천까지 가고 다시 춘천에서 양구로 가야하는데 소양호를 연한 길은 굽이진 길을 돌고 돌고 또 돌아서 가야만 했다. 돌아보면 머리가 어찔어찔하고 어느만큼 왔는지 분간하기조차 힘들었다. 행락철이 아니곤 차를 만나기도 어려웠다. 어쩌다 지나가는 차를 만나면 같이 가려고 바짝 붙어서 뒤따라 가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무척 좋아졌다. 춘천까지 고속도로가 생겨나고 소양호의 굽이진 길은 산길을 파고든 터널의 연속으로 금방 양구에 다다른다.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라는 안내간판을 금년에만도 두 번이나 지나쳤으니 아직도 30대 후반인 것만 같다.

신병교육대에 도착하니 미리 와서 준비한 청년부의 찬양이 한창이었다. 은혜와 열정의 도가니였다. 특히 자매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울동에 장병들이 열광하는 모습은 싱그러움 젊음의 발산이요, 같은 느낌을 공유하고픈 동질성의 환호성이런가.

찬양에 이어 세례식이 진행되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은 성수를 들고 집례 목사님들을 보좌하고 권사님들은 안수 후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성수를 수건으로 손수 닦아주고 꼬옥 안아 주셨다. 병사들은 마치 자기 엄마 품에 안긴 듯이 눈물을 흘리고 이에 권사님들도 같이 울먹이는 모습은 진정으로 주님의 손길에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전해지는 것 같은 감동의 현장이었다.



진작 왔어야 했는데 이제 왔음을 안타까워하며 내년에는 반드시 더 많이 동참해야겠다는 결심을 듣는다. 청년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청년이 제일 잘 알거라는 믿음과 아버지께서 두드리는 등보다는 어머니의 품이 훨씬 더 따뜻하고 그리우며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내년을 기약한다.

세례 후에 주님의교회에서 후원한 햄버거와 콜라 등 간식을 먹는 장병들의 모습에서도 은혜를 받는다. 비록 먹을 것이 있어 왔어도 그것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대단한 것이리라. 병사들 곁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픈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일정인 땅굴견학과 편지볼 답사 등 안보체험을 하기 위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금년 한해 주님의교회에서는 모두 7회에 걸쳐 1,386명의 병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을 구원케 한 일에 지원한 것이다. 주님 저들이 믿음 가운데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군경 선교담당 전선재 집사〉